

## 차트를 달리는 남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타랭킹 차트!  
연예계의 갓파더 이상민과  
예능 대세 권혁수가 함께합니다.



말 달리자?  
아니,  
차트를 달리자!





# 2016-2017 프로배구



## KBSN SPORTS 와 함께하세요!



## CONTENTS

NOVEMBER. 2016 VOL.08



04



08



12

Cover story		16	N campaign
04	토요일엔, 차트를 달리는 남자		시청자들이 보내온 웃음과 희망 메시지
06	<차탈남> 이상민, 권혁수 인터뷰	18	N day
			KBS N 북한산 가을산행
	N special	20	On air
08	프로배구 매거진 <스페셜V>의 귀환		초짜들의 리얼 골프 도전기
10	카메라로 보는 V리그 중계		<킹국진의 깨백리그>
12	Interview	21	N news
	걸크러쉬, 이젠 여자농구다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전
14	N partner	22	Notice
	OTT 서비스 리더, 딜라이브		KBS N 아나운서들의 facebook LIVE

##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11.7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02-792-5444)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 N 홍보팀 pr@kbsn.co.kr

# 토요일엔, 차트를 달리는 남자

두 남자가 차트를 달리기 시작했다. 코스프레 빙의 연기의 달인 권혁수가 새롭게 합류해 이상민과 호흡을 맞춘다. “띠드(치즈)버거 사주세요”라며 애교를 남발하는 고등학생 소녀는 황정음이 아니다. 권혁수다.



## Saturday Star Ranking Show

‘차트를 달리는 소녀’(이하 <차달소>)가 ‘차트를 달리는 남자’(이하 <차달남>)가 되어 돌아왔다. 기존의 MC 이상민만 빼고 확 바뀌었다. 세트도 달라졌다. 스튜디오 중앙에 롤스로이스를 닮은 자동차 한 대가 떡 하니 버티고 있다. 제목과 잘 어울린다. 오프닝이 시작되자 노란 목도리를 두른 여고생이 이상민 곁에 다가선다. “오빠,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아 빨리 띠드버거.” 과연 코스프레 더빙 연기의 달인이다. 첫 회 오프닝에서 가발을 쓴 로커 김경호로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지붕 뚫고 하이킥>의 황정음이다. 이 남자의 재능이 놀랍다. 나이 성별 구분 없이 무슨 역을 맡기든 3D프린터처럼 복제해낸다. 그의 이름은 권혁수. 바로 그가 이상민과 함께 <차달남>의 더블 MC를 맡았다.

### 뜬금없는 코스프레, 뜬금없는 돌발미션

“아무리 대세 코스프레라지만, 좀 뜬금없지 않니?” 이상민의 말대로 뜬금없었다. 그것이야말로 <차달남>의 매력이다. 다채로운 스타 랭킹 차트는 기본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민의 럭비공 입담, 누구로 분할지 알 수 없는 권혁수의 빙의 연기, 언제 어떤 대결이 펼쳐질

지 모르는 돌발미션, 주제에 따라 확 바뀌는 초대 손님. 이 모든 것들이 <차달남> 안에 ‘띠드’처럼 녹아 있다. 아재와 소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차달소>가 아이돌 랭킹에 집중했다면, <차달남>은 확실히 주제 면에서 폭이 넓어졌다. 원작과 싱크로율 100프로 연예인은?(1회), 놓치지 말아야 할 스타들의 해외 맛스타그램(2회), 남주기 아까운 연예계 골드미스터(3회) 같은 주제로 가수, 배우, 개그맨 등을 폭 넓게 다룬다. 또 소개하는 랭킹의 수도 크게 늘어 진행에 속도감이 붙었다. 여기에 뜬금없는 돌발미션으로 보는 재미를 더한다. 자동차 비상등에 불이 켜지면 어김없이 불려나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필살 애교로 무감각 작가 웃기기, 운동복 바지 손 안 대고 입기, 10센티미터 샌드위치 한 입 크게 베어 물기 같은, 그날 소개되는 랭킹과 연관된 예상치 못한 미션으로 승부욕을 자극한다. 이날 초대 손님으로 나온 장위안도 돌발미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중국 대표로 나서 우승했고, 상품으로 휘발유 4리터를 받았다.

### 달려가아아아, 부릉부릉부릉

“애는 나랑 달라. 그런데 비슷해.” 첫 녹화에서 이상민이 관자놀이를 손으로 긁으며 뱀은 말이다. 두 남자는 웃음의 코드가 확실히 다르다. ‘산전수전’의 대명사 이상민은 랭킹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적재적소에 풀어낸다. 그에 반해 권혁수는 ‘호박 고구마’(시트콤), ‘디오니소스’(애니메이션), ‘뽀빠이’(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중 빙의 연기의 달인이다.

이렇듯 개성 강한 두 남자가 MC로 만났다. 그런데 묘하게 잘 어울린다. 모나지 않고, 유쾌하고, 웬지 모르게 마음이 간다. 권혁수의 “달려가아아아” 모창에 이상민이 “부릉부릉부릉” 하고 받아친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만 같은 두 남자의 멘트가 서로 부딪치며 웃음의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토요일이면 이 묘한 조합의 랭킹 쇼가 한없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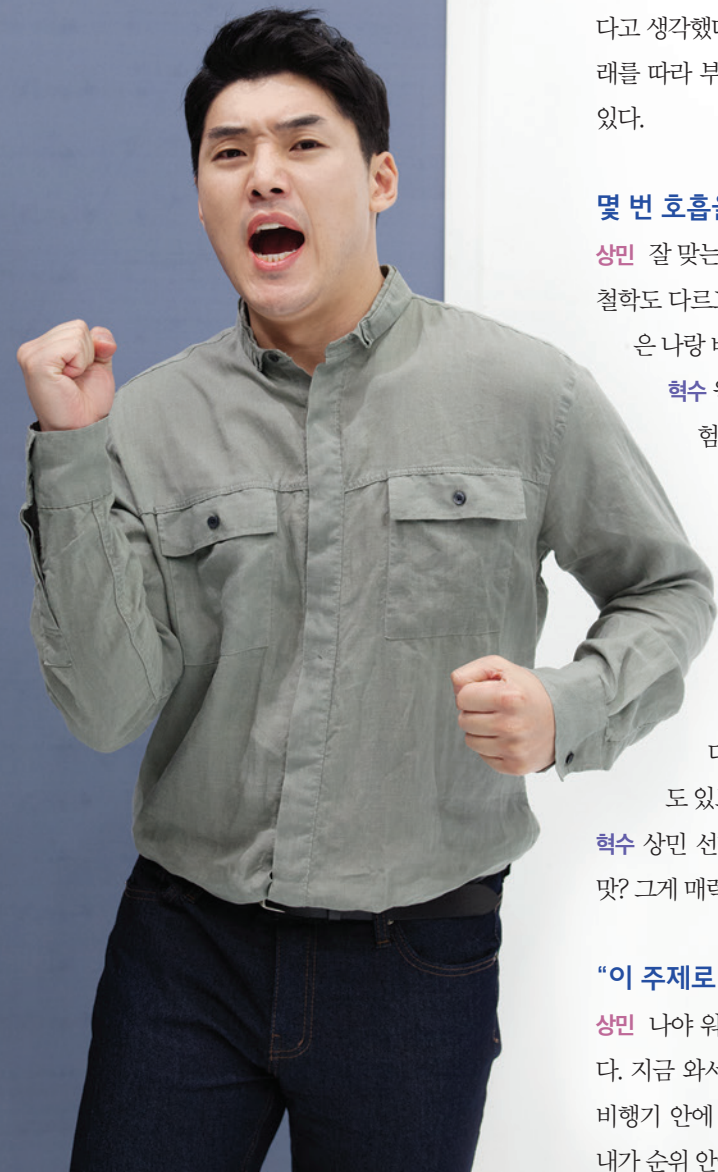


10센티미터 샌드위치를 앞에 두고 누구 입이 더 큰지 자로 재는 중이다.

# 다른 듯 닮은 두 남자

이상민, 권혁수 인터뷰

어디로 될지 모르는 <차달남>의 두 남자를 만났다. “우리 잘 안 맞아.” 입을 맞춘 듯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어쩔 그리도 닮았는지.



### 파트너가 누군지 알았을 때 어땠나?

**상민** 한파디로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소녀가 아니잖아!(웃음) 제작진이 사전에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통보만 받았다.(웃음) 혁수가 좀 특별하지 않나.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혁수** 별말씀을. 상민 형님이랑 한다고 해서 밥상에 숟가락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한테는 너무 큰 형님이다. 어렸을 때 TV 보면서 롤라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고, 정말 편하게 대해준다. 요즘 숟가락을 잘 얹고 있다.

### 몇 번 호흡을 맞춰보니 어떤가?

**상민** 잘 맞는 것 같다. 서로 잘 안 맞아서.(웃음) 사실 다른 점이 많다. 삶의 철학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의 톤이나 호흡은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에너지도 넘치고

**혁수** 원래 파이팅이 넘치는 성격이다. 나만의 조종이 있다. 서로 경험이 달라서 오히려 내가 배울 점이 많다. 형님이 나랑은 웃음의 코드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분명 세대차이다.(웃음)

### <차달남>만의 차별성과 매력이 있다면?

**상민** 우리 프로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연예인 랭킹을 차트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혁수 씨와 내가 나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폭넓은 주제의 랭킹쇼를 다룰 수 있다. 그게 강점이다. 코스프레와 성대모사에 능한 혁수 씨를 지켜보는 즐거움도 있고

**혁수** 상민 선배가 앞에서 잘 말해줬다. 두 남자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병맛? 그게 매력이다.

### “이 주제로 가면 내가 랭킹 3위 안에 든다”는 게 있나?

**상민** 나야 워낙 많다. ‘해외여행 많이 다닌 연예인’ 하면 몇 손에 꼽힐 거다. 지금 와서 유명해진 여행지를 90년대 초반에 거의 돌았으니까. 그때 비행기 안에 흡연실도 있었다. ‘많이 벌었다 많이 잃은 연예인’으로 가도 내가 순위 안에 들 거다. 이 얘긴 더 깊이 안 하겠다.(웃음)

**혁수** ‘고무줄 몸무게’가 주제라면 자신있다.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가만히 두면 그냥 찐다. 관리해서 유지하거나 걱정하고 빼야 한다. 많이 나갔을 때가 105킬로그램이었다. 저울로 확인한 게 그렇고, 그달 말까지 죽 먹었으니 110은 찍었을 거다. 그리고 나서 걱정하고 뺐다. 아래로 58킬로그램까지 빼본 적이 있다.

### 돌발미션과 미션상품인 휘발유 4리터, 불만 없나?

**상민** 휘발유 냄새 좋아한다. 불만 없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프로듀서와 작가를 믿고 가는 편이다. <차달소>로 손발을 오래 맞춘 제작진이라서 믿음이 있다. 시키면 다 해야지. 뭐든 하겠다.

**혁수** 음식 먹는 미션은 대환영이다. 다만 매운 건 싫다. 좀 전에 말린 쥐똥고추(태국고추)를 먹었는데, 아직도 매운 맛이 올라온다. 휘발유에 대한 불만은 없다. 경유를 쓰는 내 차가 불만일 따름.(웃음)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다.

###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 스타는?

**상민** 나야 당연히 AOA 초아다. 박미선 선배에게 <차달소>에서 초아랑 참 재미있게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초아에게 초아만의 엉뚱 발랄한 매력이 있다. 초아야, 아재는 내가 보고 싶다. 잘 지내지?

**혁수** 아이들이 오면 아무래도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다. 첫 회 돌발미션에서 “구스따스뚜~ 구스따스뚜~”(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를 불러서 무감각 작가를 웃겼다. 그런 의미에서 걸그룹 여자친구가 와도 좋을 것 같고, 모시고 싶은 분은 내가 따로 제작진에 문자를 보내겠다.

###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에게 <차달남>이란?

**상민** 앞으로 내가 랭킹 1위에 꼭 오르고 싶은 프로그램. 긍정적인 의미에서.(웃음) 그때까지 “부릉부릉부릉~”

**혁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동을 걸어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멋지게 “달려가아아아아~”



# Comeback <스페셜V>의 귀환

전무후무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배구 매거진 <스페셜V>가 새 단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게임보다 배구!"를 외치는 방송인 홍진호와 '차세대 배구 여신' 조은지 아나운서가 호흡을 맞췄다. 이제 '겨울 스포츠의 꽃' V리그를 특별하게 즐겨보자.



V리그 개막과 함께 원조 프로배구 매거진이 돌아왔다. 그동안 <스페셜V>를 기다린 팬들 참 많았다. "올 시즌엔 왜 안 해요?" "리얼습격 닥터V, 이제 못 봐요?" <스페셜V>가 새로운 두 MC와 함께 찾아왔다. '이제 게임이 아닌 프로배구도사'를 꿈꾸는 홍진호와 '차세대 배구 여신' 조은지 아나운서가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걸어 다니는 배구 백과사전'으로 통하는 KBS 손기성 기자가 패널로 합류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 KBS N Sports 채널에서 방송되는 <스페셜V>는 주간 배구 경기의 빅이슈를 한눈에 짚어준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다. '리얼습격 닥터V', '힐링데이트 V룸' 등 선수

들의 인간적인 매력과 넘치는 끼를 담아내는 코너들을 확실히 보장했다. 보면 볼수록 배구의 매력에 빠져드는 <스페셜V>의 세부 코너를 속속들이 알아보자.

## ● V리그의 빅이슈를 한눈에! 발리볼 이슈 팡팡

한 주간 V리그 경기 중 따끈따끈한 이슈만을 모아 전달하는 코너다. 두 MC가 각각 한 주간의 이슈를 소개하고, 화제가 된 팀이나 선수를 조명한다. 게임을 하듯 배구를 즐기는 홍진호, 싱그러운 함박웃음이 매력적인 조은지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인다. 여기에 굵직굵직한 이슈의 핵심을 콕콕 짚어주는 손기성 기자의 차분한 정리가 전문성을 더한다.

## ● 선수들의 숨겨진 민낯 공개! 리얼습격 닥터V

배구를 모르는 사람도, 보고 나면 배구의 매력에 빠지고 배구 선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마성의 코너. 개그맨 김범용과 김보경 아나운서가 V리그 구단을 급습, 훈련장과 숙소를 찾아가 선수들의 민낯을 거침없이 공개한다. 코트 밖 선수들의 속사정과 원석 같은 루키들의 감춰진 끼를 파헤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닥터V'에서 빠질 수 없는 숙소 탐방은 선수들의 리얼한 일상과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유소년 선수들에게 배구 용품을 기부하기 위해 선수들이 직접 미션 도전에 나서 훈훈함을 더한다.

## ● 다시 보는 명승부 아나vs아나

대한민국 배구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명승부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조명해보는 코너. 이호근, 이향 아나운서가 편을 갈라 그때 그 시절의 짜릿한 명승부를 돌아본다. "너 이거 아나?", "그러는 너는 이거 아나?" 하며 티격태격하는 편파 중계의 재미도 놓칠 수 없다.

## ● 배구 스타와의 심층 인터뷰 힐링데이트 V룸

대한민국 최초! 배구 스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터뷰 룸을 신고 직접 찾아가는. 즉문즉답, 배달의 떡방, 흑역사 공개 등 스타 선수의 개인사와 끼, 취향을 낱알이 파헤치는 심층 인터뷰로 진행된다. 첫 회에선 IBK기업은행의 박정아 선수를 만났다. 요즘 꼭 빠져 있는 아이돌부터 감동의 눈물까지, 선수들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V룸'을 주목하자.



## 배구를 보는 16개의 시선

배구공을 쫓느라 바쁘다. 박진감 넘치는 V리그 경기를 안방에 전하는 KBS N Sports의 카메라 이야기다. 리시브, 토스, 공격 세 번의 터치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16개의 시선을 따라가보았다.

지난 10월 15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2016-2017 V리그가 개막했다. KBS N Sports의 배구 중계 제작진도 덩달아 바빠졌다. PD, 기술감독, 영상감독, 음향감독 등 20여 명의 스태프는 경기 시작 5시간 전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다. 중계차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며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배구 중계 하면 KBS N Sports다. 한국배구연맹이 2007-2008 시즌에 비디오 판독을 처음 도입할 때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를 잠재운 것이 KBS N Sports의 카메라워크였다. 국제배구연맹도 인정했다. 지난 시즌 최부식(현 대한항공 코치)의 발디그를 여러 각도에서 잡아낸 영상은 두고두고 화제였다. 이번 시즌에는 2009년에 <아이러브 베이스볼>을 처음 기획한 주승호 PD가 메인 PD로 참여했다.

“현장의 생생함과 박진감을 전하기 위해 총 16대의 카메라를 배치해요. 그중 10대는 사람이 조작하는 유인카메라, 6대는 초점 고정으로 설치된 무인카메라죠. 이들 카메라가 잡아내는 영상을 중계차에서 받아서 내보내요.” 최고의 중계를 위해서는 손발이 딱딱 맞는 카메라워크가 필수다. 사각은 찾을 수 없다. 리시브, 토스, 공격이라는 세 번의 터치를 잡아내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카메라를 쫓았다.



**1** 관중석 중앙 상단에 있는 메인 카메라다. 우리가 보는 배구 중계 화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눈에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폴샷으로 선수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잡아낸다. (경기장 맞은편 카메라는 양 팀 감독이나 교체 선수의 클로즈업, 관중을 잡는 용도로 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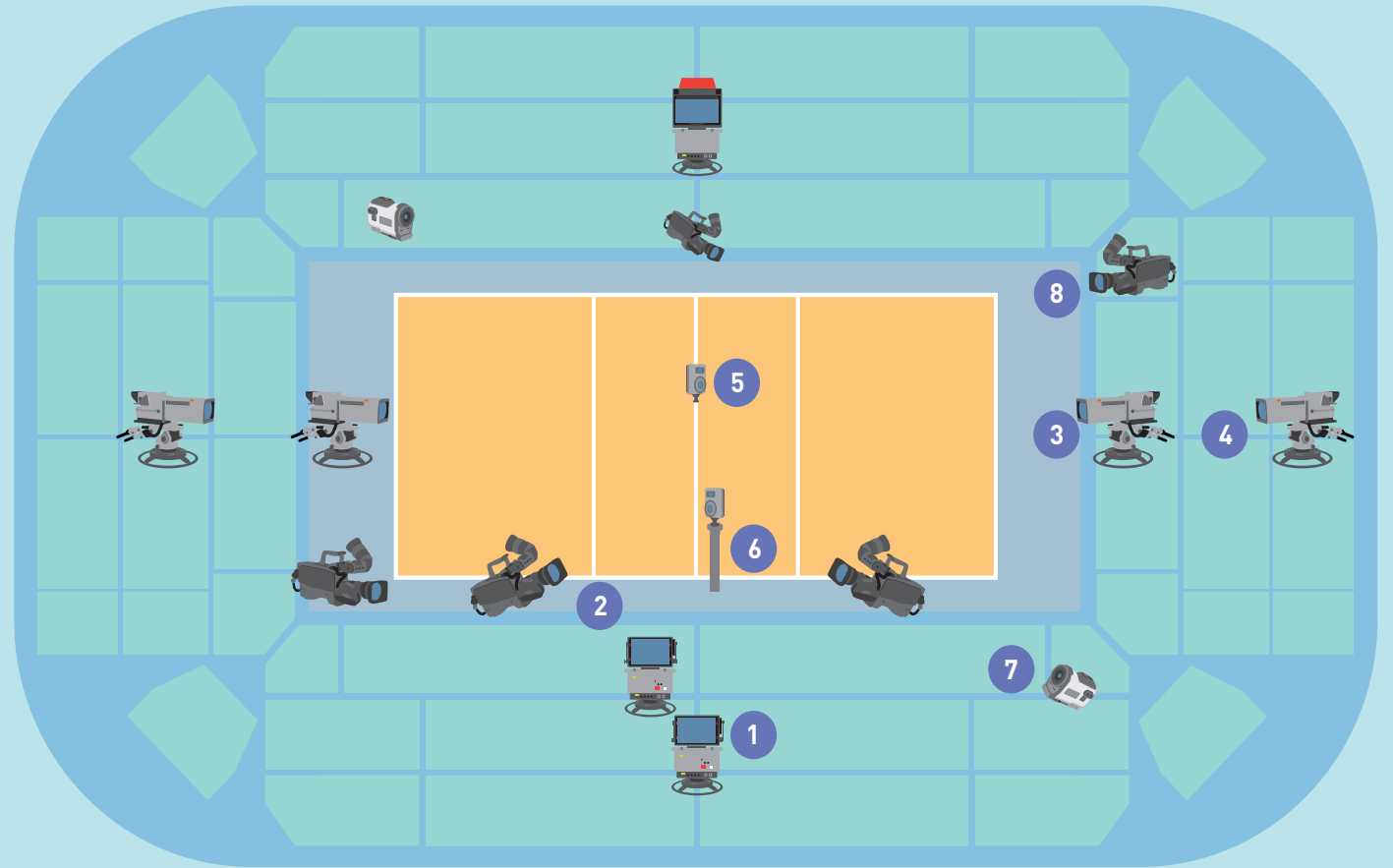
**2** 1층에 위치한 카메라로, 삼각대에서 분리해 이동할 수 있다. 주요 선수와 심판을 찍다, 작전타임 부저가 울리면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감독과 선수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담는다. 코트 좌우에 한 대씩 있다.



**3** 1층 엔드라인 뒤쪽에 있는 초고속 카메라다. 줌으로 담겨 주요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초당 2,600프레임을 담을 수 있어 얼굴에 땀 뭉방울까지 선명하게 잡아낸다. 맞은편에도 한 대가 더 있다.



**4** 경기장 양 끝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다. 주요 선수나 대체 선수를 비추거나, 비디오 판독을 위한 와이드 컷을 제공한다. 맞은편에도 한 대가 더 있다.



**5** 왼쪽 모니터는 천장 카메라에 비친 영상이다. 앞에 놓인 조종기로 카메라를 움직여 필요한 화면을 잡아낸다.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는 6번 카메라 위, 천장 쪽이다. 경기 시작 전후나 자료 화면 배경으로 자주 쓰인다.



**6** 네트 위에 고정된 핀 카메라다. 경기 전 네트를 거는 기둥에 폴을 달아 고정된 후 화각을 잡아준다. 선수들의 네트터치를 정확하게 잡아낸다.



**7** 엔드라인 쪽에는 비디오 판독용 초고속 카메라가 한 대씩 달려 있다. 2층에 고정되어 있으며 심판들이 서브 득점, 볼의 인아웃 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게 쓰인다.



**8** 사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고정 카메라에 비친 화면이다. 라인별로 1층에 한 대씩 설치해둔다.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 고정되어 있다.

# 걸크러쉬, 이젠 여자농구다



김기웅, 이지수, 안애경  
아나운서

10월 25일, 여자프로농구의 시작을 알리는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기웅 아나운서를 비롯해 이지수, 안애경 아나운서는 6개 구단의 감독, 선수들을 만나 인사와 답소를 나누느라 분주해 보였다. 지난 9월 일본 전지훈련에 동행해 전 구단을 돌며 취재를 했던 터라 이날의 만남이 더 반가웠던 모양이다. 여자농구 단독중계에 나선 KBS N Sports의 세 아나운서를 만나 시즌 전 준비 과정부터 여자농구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안애경, 김기웅, 이지수 아나운서

## #시즌을 앞두고 #준비와 각오

**김기웅** 중계를 맡은 캐스터다 보니 지난 시즌 리뷰, 이번 시즌 프리뷰를 정리하면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번째 맞는 시즌이라 이전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가장 쉬운 말로 어떻게 하면 공감이가 재미난 중계를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한다.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도 힘쓰고 있다.(웃음)

**이지수** 선수, 감독들의 현장 인터뷰를 담당하는 만큼 인터뷰 준비에 바쁘다. 지난 시즌은 처음이라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이제 2년 차다. 선배들 말로는 2년 차가 가장 고민이 많다는데, 열심히 해서 “이지수 없이는 여자농구 인터뷰가 재미없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

**안애경** 책도 보고, 농구 경기도 보고, 선배들에게 물어도 가면서 농구를 ‘공부’하고 있다. 한 시즌 겪고 나니, 농구를 직접 배워보면 느끼는 바가 다를까 싶어 농구교실에도 등록했다. 선수들이 코트에서 흘린 땀이 더 빛날 수 있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 목표다.

## #일본전지훈련 #에피소드

**김기웅** 지난 9월에 KBS N Sports가 방송사 최초로 여자농구 전지훈련을 다녀왔다.(박수) 취재 차 전 구단을 돌며 최근 정보와 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맹훈련에 말을 잃은 모습, 시즌 때보다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 등 선수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이는 KBS N Sports에서 <너와 함께 슬램덩크>라는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이지수** 일본에서 현지 여자농구 팀과 연습경기를 펼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외국에서, 그것도 시즌 전에 만나니 더 살가워지고 친해진 것도 사실이다. 농구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져서 앞으로의 인터뷰가 더 풍성해질 것 같다. 감독님 성향에 따라 같은 질문도 다르게 던질 수 있고.

**안애경** 훈련부터 연습경기, 사석에서의 시간까지 함께하고 나니 여자농구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다. 시즌 중에는 특별 수훈선수와의 인터뷰하게 되어 다른 선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원 없이 소통했다. 또 재활조와 운동조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모습, 감독님의 호통에도 기죽지 않고 차근차근 움직임을 짚어보고 연습하는 선수들의 모습, 선수들에 대한 애착과 우승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는 감독님들의 모습 등이 기억에 남는다.

## #6개구단 #이번시즌예상

**김기웅** 변연하, 하은주, 신정자 등 베테랑 선수들이 은퇴했지만, 김단비(신한은행), 박혜진(우리은행), 강아정(KB스타즈) 같은 스타성과 실력을 겸비한 에이스들이 각 팀의 주축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강이슬(KEB하나은행), 홍아란(KB스타즈), 김규희(신한은행) 같은 92년 이후에 태어난 ‘라이징 스타’들도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이번 시즌의 최대 이슈도 “통합 4연패를 달성한 우리은행을 과연 어느 팀이 흔들 것인가?”다. 검증된 외국인 선수 엘리사 토마스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가장 막강한 라이벌이다. KDB생명이나 KEB하나은행은 경기력보다 분위기 쇄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지수** 안덕수 감독의 KB스타즈가 단연 화제다. 나랑 이름이 같은(웃음) ‘여고생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서 KB의 유니폼을 입었다. KB의 강점인 외곽은 물론, 이제 골밑까지 보강이 되면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안애경** 2년 연속 꼴찌를 한 KDB생명이 이번 시즌에는 치고 올라왔으면 한다. 그러자면 이경은, 한채진 선수의 플레이에 힘을 실어줄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크리스마스 선수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 #눈여겨볼 선수 #이선수매력장

**김기웅** 신한은행 가드인 윤미지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여자농구의 매력을 알 수 있다. 헤어밴드를 한 작은 선수가 양중맞게 드리블을 하는데, 그 안엔 공격성과 민첩함이 공존한다. 사실 드리블 기술로는 KDB생명 이경은을 따를 선수가 없다. 트레이너들이 인정하는 선수다. 또 신한은행 김단비는 피지컬이 좋다. 운동 능력과 가속도에서 남자에 밀리지 않는다.

**이지수** 삼성생명 강계리 선수가 눈에 띈다. 외모나 스타일도 그렇고, 저 선수 참 개성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일본에서 보고 확실히 알았다. 끼가 철철 넘치는 분위기 메이커다.

**안애경** 강아정 선수를 꼽고 싶다. ‘변코비’ 변연하의 뒤를 이어 KB스타즈의 주장을 맡았는데, 본인만의 카리스마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장이기 때문에 참고는 있지만, 숨길 수 없는 장난기가 있다.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서 그 인간적인 매력에 반한 것 같다.

## #여농의 매력 #한마디로 정리

**김기웅** ‘미혼남의 육아일기’로 정리하겠다.(웃음) 때는 바야흐로 2012년, 중학생 어린 선수들과 함께 LA로 유망주 육성 캠프를 다녀왔다.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데, 나를 “쌤~”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 내후년이면 프로에 올라온다. 마치 내가 그 친구들을 키운 것만양 뿌듯하고 감동적이다. 나도 이제 여농 캐스터 4년 차니, 같이 커가는 중이다. 선수들이 이젠 가족 같다. 팬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다.

**이지수** 한마디로 ‘노 메이크업’이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 유독 몸싸움이 거친 운동이다 보니, 선수들이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땀 흘리며 부딪치게 된다. 그 모습에서 순수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안애경** 여자농구는 ‘볼매’(볼수록 매력)다. 몸싸움도 치열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던 여전사들이 코트 밖에만 나오면 천생 여자다. 걸크러쉬의 당당함이 있는 반전 매력의 스포츠다.



# OTT Service Leader

딜라이브 대표이사 전용주

KBS N과 오랫동안 파트너로 함께한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딜라이브가 OTT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래의 돌파구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하는 전용주 대표를 만났다.

### 딜라이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딜라이브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케이블TV 방송국 17개를 소유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수종합 유선방송사업자(MSO)다. 전통적인 케이블TV방송 사업을 기반으로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 디지털 콘텐츠 및 다양한 결합 상품 등을 제공하며 종합멀티미디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 지난 4월 씨앤엠(C&M)에서 딜라이브(D'LIVE)로 사명을 바꿨다. 어떤 의미가 있나?

씨앤엠은 본래 ‘Cable & More’라는 뜻인데, 케이블이라는 상호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디지털 라이브 환경에 맞는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딜라이브라는 사명을 선택하게 되었다. 딜라이브는 ‘Digital Life’와 ‘Delight Live’를 의미한다. 기존의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을 단순한 가입자가 아니라 ‘홈라이프 스타일 파트너’로 보고 방송과 삶을 결합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 넷플릭스와 손잡고 OTT(Over The Top·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출시한 ‘딜라이브 플러스’에 대해 소개해달라.

딜라이브 플러스는 국내 최초 넷플릭스TV 전용 OTT 셋톱박스다. 손바닥만 한 셋톱을 달면 TV가 스마트하게 변한다. 스마트폰 앱을 열듯, TV로 앱을 열어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딜라이브 OTT 셋톱박스에서는 넷플릭스 앱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앱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스포츠, 드라마, 영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앱을 업데이트 중이고, 지난 9월에는 ‘무비&드라마’ 앱에 KBS 드라마를 대거 추가했다. KBS N도 앱을 만들어 자체 콘텐츠를 딜라이브 플러스로 서비스할 수 있다.

### OTT 서비스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인 미디어 동향과 관계가 깊다. 이제는 실시간이 아닌 원하는 때에 방송 콘텐츠를 찾아본다(VOD 서비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TV, 온라인, 모바일 윈도우가 쉽게 연동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라인-모바일 연동만 활발하다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OTT 셋톱박스를 통한 TV와의 연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이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OTT 서비스야말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 수 있는 강력한 미래성장 동력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넷플릭스라는 파트너를 만났다. 딜라이브는 OTT 셋톱박스를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KBS N이 앱을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한 맥락도 여기에 있다. 자체 콘텐츠를 앱 서비스로 기획, 제작해서 딜라이브의 셋톱박스에 넣기만 하면 된다.

### 딜라이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듣고 싶다.

딜라이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기업의 의지다. 넷플릭스가 우리와 손을 잡은 것도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케이블사업자에서 OTT 전국 사업자로 거듭나는 것이 큰 목표다. 실질적으로 국내 OTT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

이 외에도 자회사 IHQ,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시너지를 꼽을 수 있다. 채널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IHQ와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례로 VOD 메뉴에 스타존 카테고리를 만들어 IHQ, 큐브엔터테인먼트 스타들의 관련 영상만 모아 킬러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IoT, AR, VR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고자 한다. 모바일 영역에 있는 게임, 편의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TV 영역으로 끌어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 파트너사로서 KBS N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전(미래창조과학부 주최)을 KBS N과 함께 후원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TV용 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이 나왔으면 한다. OTT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 앱의 개발이 꼭 필요한 만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KBS N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콘텐츠 사업자인 KBS N이 뛰어난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KBS N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함께 돌파구를 찾았으면 한다.



#### 딜라이브 플러스

<하우스 오브 카드>, <마르코 폴로> 등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의 영상을 TV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TT 셋톱박스다. 스포츠, 드라마, 영화, 종교,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앱의 형태로 지원한다.



# 시청자들이 보내온 웃음과 희망 메시지 당신의 웃음이 희망입니다

'2016 KBS N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과 더불어, 지난 9월 말부터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응모 받았고, 1,6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웃음 가득한 여러분의 얼굴에서 희망을 봅니다.

from 임주미 님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지고 싶어 하는 딸과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의 밀당에 한참을 웃었네요. 일상의 소소한 웃음에서 희망을 봅니다.

from 김효민 님



외할아버지를 참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버스 일을 마치고 온 할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네요. 무뚝뚝한 아빠도 손주만 보면 웃음이 넘치세요.

from 장성웅 님



쌍둥이처럼 닮은 어머니와 큰 이모님의 미소. 고향을 찾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from 조경미 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외할머니 댁에서 한없이 웃으며 즐거워하는 딸들을 보니 문득 하늘나라에 계신 외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으시고 좋아하셨겠죠?

from 이경옥 님



아흔 살의 엄마를 웃겨드리고 있는 신다섯의 딸입니다. 세월은 변해도 사랑은 변치 않을, 알콩달콩한 모녀랍니다~

from 최현준 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아루사라는 산골마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예쁜 벽화도 그리고^^ 마지막 날 해맑은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담아왔습니다.

from 손주형 님



아빠와 딸 둘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도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최고였어요! 우리 딸이 항상 이따를 기억해 주길 소망해봅니다.

from 강은규 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부모님 사진입니다. 나이가 들어 흰머리는 늘었지만 두분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우시죠? 저희 부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from 이주연 님



친정 아빠와 아들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늘 표정이 굳어서 웃는 사진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손주를 안고 활짝 웃으셨네요. 아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from 이슬민 님



커다란 눈망울로 으매 하는 송아지를 보고 함박웃음 짓는 아들. 그런 손주의 웃음에 행복해하는 어머니입니다.

##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 그 두 번째 이야기

### <다시 살아나는 갯벌>

KBS N은 인천대교(주)와 함께 '웃음이 희망입니다' 사회공헌 캠페인 영상을 매달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갯벌 살리기'는 칠계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심을 두고 실천할 때 웃음은 피어나고 희망은 자라납니다.



# 원효봉에서 희망을 외치다

KBS N 북한산 가을산행

선선한 바람을 타고 산자락에 붉은 단풍이 물드는 가을, KBS N은 북한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전 직원이 가파른 돌계단을 넘어 원효봉에 올랐다. 함께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



10월 17일 월요일, KBS N 전 사원이 북한산성 입구로 출근했다. 가을산행이 있는 날, 아침 일찍부터 한 손에 김밥을 들고 지리산 종주를 앞둔 산악회 회원들처럼 의욕 넘치는 파이팅을 보였다. 이날 산행에는 이준용 대표이사, 송전현 부사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아나운서와 해설위원들도 빠지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10개 조로 팀을 나눠 길을 나섰다. 계곡을 옆에 두고 나란히 걸으며 열린 하늘로 위용을 드러낸 북한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그간 업무로 바빠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한 동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겹게 산길을 걸었다.

한두 차례 고비를 맞기는 했다. 북한산성 북문에 이르는 돌계단이 난코스였다.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원효봉에 발을 디뎠다. 산행의 노곤함도 잠시, 눈앞에 보이는 백운대의 기세와 발 아래로 펼쳐진 산자락의 풍광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고진감래라고, 정상에서 맛보는 커피와 간식은 달기가 그지없었다.

완주의 기쁨은 뒤풀이로 이어졌다. 함께 점심을 먹고, 신입사원들의 장기자랑을 큰 박수로 즐겼다. 또 이준용 대표이사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열창했고, 직원들이 따라 부르는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큰 울림을 안겼다. 모두 함께해서 좋았다. 또 하나의 추억을 공유하며 입가에는 웃음을, 마음속에는 희망을 품은 뜻 깊은 하루였다.



## 초짜들의 리얼 골프 도전기 킹국진의 깨백리그

초보들이 필드에서 '100타'의 장벽을 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여기 골프 초보 탈출을 위한 예능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골프광 김국진이 초보 6인을 이끌고 '깨백' 도전에 나섰다.



골프 휴먼 성장 예능 <킹국진의 깨백리그>의 목표는 분명하다. '100일 안에 깨백하기.' 골프 초보를 자처하는 6인의 연예인이 100일 안에 100타 깨기에 도전한다. 김국진은 연예계 최고의 골퍼로 통한다. 1999년부터 한국프로골프협회의 프로테스트에 15차례나 도전한 알아주는 실력파다. 여기에 얼짱 프로골퍼인 김가형이 그와 보조를 맞춰 MC로 나섰다. 골프 초보로 나선 6인의 도전자도 흥미롭다. '재기의 아이콘' 개그맨 윤정수, '영동 매력남' 강남, '군통령 섹시돌' 스티라 가영, '상큼발랄 슈퍼모델' 송해나, '필라테스 강사 출신 스포티녀' 심은똘, 신인 배우 이정빈이 합류했다.

'깨백'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00일 안에 깨백을 하려면 프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기본으로 6시간은 연습을 해야 한다. 김가형 프로는 3%, 김국진은 0.3%로 성공 가능성을 낮게 잡았다. 결코 만만한 도전이 아니다. 도전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10시간 이상은 골프 연습에 나선다'는 입단서 조항에 서명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예능은 예능이다. 골프의 기억 자도 모르는 사람도 흥미롭게 볼 수 있다. 김국진과 주머니 받거나 하며 보조를 맞추는 윤정수의 입담, 2년 구력을 앞세운 윤정수에게 핸디캡을 줘야 한다며 발끈하는 강남, 체력 테스트에서 놀라운 균형감과 유연성을 보

여준 스티라 가영 등 웃음과 볼거리를 놓치지 않는다. 본격적인 레슨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판에 박힌 골프 레슨은 지양한다. 성별, 나이, 체형에 맞는 레슨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는 스윙을 빠르게 찾아가도록 돕는다. 필드의 경험으로 다져진 김국진의 개성만점 골프 레슨이냐? 아니면 기본기에 충실한 프로골퍼 김가형의 정통 레슨이냐? 골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즐긴다. 100일 만에 누구의 실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재미야말로 <깨백리그>의 진짜 매력이다.



## KBS N,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전 후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가 결합된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신생 벤처기업, 예비 창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KBS N이 후원하는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 챌린지(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미디어센터 주관)가 지난 10월 17일부터 참가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스마트미디어는 미디어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융합 미디어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소셜미디어, 스마트 TV 앱 등이 여기에 든다. 신생 기업(창업 3년 이내), 예비 창업자들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청년 인재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KBS N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부가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계기로 후원에 나섰다. 대회 신청 마감은 11월 16일까지이며,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K-POP 스타가 전하는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

인천대교 개통 7주년 기념 '웃음희망콘서트'

KBS N, 인천대교가 함께하는 웃음희망콘서트가 인천대교기념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인천대교 개통 7주년을 기념하는 '웃음희망콘서트'가 지난 10월 28일 인천대교기념관 특설무대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KBS N은 지난 9월부터 인천대교와 함께 <2016 웃음희망입니다>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 역시 양사가 함께 추진했다.

인천대교기념관 부근에 마련된 야외 특설무대에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무료로 입장해 한밤의 콘서트를 즐겼다. 이날 공연에는 B.A.P, 아이오아이, 몬스터엑스 등 아이돌 그룹은 물론 한동근, 소찬휘, 장윤정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수들이 출연해 열기를 더했다. 인천대교 개통 7주년 기념 웃음희망콘서트는 11월 초 KBS N의 채널을 통해 녹화 방송된다.



Notice

LIVE

# facebook LIVE with KBSN아나운서



겨울 스포츠의 꽃,  
남녀프로배구와 여자프로농구를 위해  
KBS N 아나운서들이 나섰다!

KBS N 아나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남녀프로배구, 여자프로농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LIVE로 전해드립니다.

facebook LIVE time

남녀배구\_ 첫 경기 시작 50분 전  
여자농구\_ 경기 시작 30분 전



KBS N 아나운서 페이스북  
[www.facebook.com/kbsnann](http://www.facebook.com/kbsnann)

N pick

## 차달남, 달려가아아아

코스프레 빙의 연기의 달인인자, 김경호 모창의 대가 권혁수가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 MC로 합류했다. 모나지 않고, 유쾌하고,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는 두 남자의 새터데이 스타 랭킹쇼, <차달남>의 질주를 기대하시라!



권혁수가 김경호 모창으로  
이상민의 배꼽을 주었다 놓는 중이다.

# 주간배구 매거진 스페셜 Special V



매주 월요일 밤 9시 KBSN SPORTS

[www.kbsn.co.kr](http://www.kbsn.co.kr)